

쌀값 상승에 광주·전남 농협 RPC 적자폭 줄었다

전남 26곳 지난해 23만4000t 판매...매출 62억 늘고 28억 손실

지난해 광주·전남 26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총 28억원 당기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영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쌀값이 7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적자 폭을 줄이고 총 매출은 62억원 가량 늘었다.

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협 RPC 26개소는 28억원 당기손실을 냈다. 이는 전년 당기손실 56억원에 비해 적자 폭을 절반으로 줄인 수치다.

전남 농협RPC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2011년(당기이익 52억원)과 2018년(“55억원)을 제외하고, 2012년 39

억원, 2013년 84억원, 2014년 126억원, 2015년 58억원, 2016년 66억원, 2017년 32억원, 2019년 56억원, 지난해 28억원 등 8개년 적자영업을 했다.

지난해 26개 RPC 가운데 흑자 영업은 11개소(42.3%)였고, 15개소(57.7%)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흑·적자 영업 사업장 비율은 각각 37.0%, 63.0%였다.

지난해 전남 농협 RPC들은 쌀값 상승 영향으로, 판매 물량이 1만 줄었으나 총 매출은 6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농협 RPC 쌀 판매 물량은 23만4000t으

로, 전년보다 4.1%(-1만t) 감소했다.

반면 RPC 총 매출은 2019년 4408억원보다 1.4%(62억원) 가량 증가한 447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RPC 개소당 평균 매출액도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5.5%) 증가했다.

단 개소당 평균 손익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RPC들은 개소당 1억800만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전년 당기손실 2억700만원보다 적자 폭을 절반 가량(9900만원) 줄인 금액이다.

RPC와 비RPC를 합친 쌀(정곡) 재고량은 5분의 1 가량 줄어든 상태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남 쌀 재고량은 12만1000t으로, 1년 전(15만1000t) 보다 19.5%(-3만t) 감소했다. RPC 재고는 8만6000t에서 7만3000t으로 15.1%(-1만3000t) 감소했고, 비RPC 재고량도 6만5000t에서 4만8000

t으로 25.3%(-1만7000t) 줄었다.

전국 쌀 재고량은 지난해 85만9000t에서 올해 71만9000t으로, 16.3%(-14만t) 감소했다.

RPC 쌀(20kg) 평균 출하가격은 지난해 11월 5만원을 넘긴 뒤 상승세가 주춤하다.

RPC 쌀(20kg) 평균 출하가격은 지난해 11월 5만2545원으로, 1년 전 4만6115원 보다 13.9%(6430원) 올랐다. 쌀 출하가는 지난해 11월 5만1086원으로, 처음 5만원 선을 돌파한 뒤 12월 5만2522원, 올해 1월 5만3049원으로 오르다 2월에는 전월보다 164원 가량 떨어졌다.

2월 기준 전남 쌀 출하가는 전국 평균(5만5041원)보다 2500원 가량 낮다. 출하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 6만1737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6만56원), 충북(5만4592원), 충남(5만3719

원), 경북(5만3135원), 전북(5만3071원), 전남, 경남(5만340원) 순으로 높았다. 광역시 평균 출하가는 5만6174원이었다.

한편 올해 1~2월 잇따라 열린 ‘정부양곡 1~2차 공매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상장물량 1차 1만129t, 2차 1만7030t의 낙찰률은 각각 78.0%(7899t)와 68.5%(1만1668t)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2차 낙찰률이 전국 평균(80.5%)을 밑도는 데 대해 “1차 공매(2018년산) 진행과 2020년산 산물벼 인수·인도로 자금이 부족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차 공매본인 2019년산 쌀이 품위가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공매 예정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률이 저조해 다수 우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목포 첫 10년 임대 '평화광장 모아엘가'

오늘 오픈 12일까지 청약...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혜택

헤림건설은 9일 목포시 상동 1115-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는 지하 1층-지상 28층, 전용면적 84㎡ 110세대, 72㎡ 44세대 중 소형 아파트와 소형 주거상품인 29㎡ 63실 오피스텔 등 총 217세대·실로 구성된다.

목포 첫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주택 소유에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중도

도 평화광장 인근에 들어서는 하당 생활권으로 롯데마트, CGV, 평화광장, 이마트, 기독병원, 은행 등 각종 생활·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입암산과 영산호 조망(일부 세대), 영산호 수변공원, 갯바위, 달맞이 공원, 평화광장 산책로, 목포자연사박물관 등도 가깝다.

도보권으로 신흥초와 목포중앙여중, 영흥중, 목포하당중, 목포제일여고, 영흥고, 목포고 등 학군을 비롯해 하당 학원가도 인접하다.

이밖에 통일대로, 평화로, 백년대로를 통해 목포 시내 이동이 편리하고,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KTX·SRT 목포역도 가까워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온라인 청약접수는 오는 12일까지 가능하며, 주택전시관은 목포시 상동 1123번지 2층에 마련됐다.

자세한 문의를 홈페이지(<http://mokpo.moaelga.co.kr>) 또는 대표전화(061-981-1107)를 통해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3.26 (+5.85)
↑ 코스닥	982.02 (+8.80)
↓ 금리(국고채 3년)	1.152 (-0.029)
↑ 환율(USD)	1117.20 (+0.90)

“디지털 강화 걸림돌 ‘수직적 은행문화’ 깨자”

광주은행, 토스 교류 연수

“디지털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수직적 은행 문화는 깨라.”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동력을 얻은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디지털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최근에는 광주은행 핵심 인력을 핀테크(금융정보기술) 대표 업체인 ‘토스’에 파견 보내면서 빠른 디지털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2일 이틀 동안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 본사에서 인적 교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쟁선 상에 있는 금융업계 간 이 같은 인적 교류는 처음이다.

참가 인원은 광주은행 행원과 과장 8명으로, 이들은 토스 업무와 조직문화, 수평적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유했다.

광주은행과 토스가 제휴를 맺어 진행 중인 ‘입출금계좌 신규 마케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인적 교류는 광주은행과 토스가 업무협약을 맺은 지난 2월, 송 행장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은행 직원 8명은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비바리퍼블리카 본사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교류 연수를 받았다. <광주은행 제공>

디지털 혁신 금융 선도를 위해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은행원들의 사고방식에 벗어나 금융과 혁신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는 핀테크 기업 문화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광주은행은 제1금융권 최초로 지난 2019년 9월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내통장 개설 이벤트’ 등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송 행장은 “앞으로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등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의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직원들에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 새 엠블럼 ‘첫 차’ K8 달린다

사전계약 첫날 1만8015대 ‘최다’

기아가 8일 새 엠블럼을 적용한 첫 모델 ‘K8’을 출시했다.

기아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K8의 내외장 디자인과 사양을 소개하는 온라인 발표회를 중계했다.

K8은 K7의 후속 모델로, 전월까지 12영업일 동안 총 2만4000여대가 사전 계약돼 기아가 연간 국내 판매 목표인 8만대의 30%를 달성했다. 사전계

약 첫날에만 1만8015대가 계약돼 기아 세단 역대 최다 기록을 쓰기도 했다.

해당 모델은 기아의 신규 디자인 철학 ‘오픈핏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가 반영됐으며, 전면부는 신규 기아 로고와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처음 적용됐다.

실내 공간은 1등석 공향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했으며,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부드럽게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2인치 헤

드업 디스플레이가 운전자 중심 공간을 구현한다.

이밖에 기아 최초로 영국 대표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인 메리디안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했고, 실내 곳곳에는 엠비언트 라이트(무드 조명)가 적용됐다.

기아는 K8을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3가지로 운영하고, 다음달 중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도 출시할 방침이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3279만원, 노블레스 3510만원, 시그니처 3868만원, 3.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3618만원, 노블레스 3848만원, 시그니처 4177만원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